



21일 진행된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안)' 도민 설명회에서 연구진이 기본계획 반영 과제(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수질·농업용수 활용 등 대안 추가돼야”

21일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도민 설명회
기본계획 과제 발표 이어 도민-전문가 질의·응답
연구진, 우수율·농업용수 공급 체계 등 문제 지적

제주 지하수의 통합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관련 첫 공론화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수질' 문제에 대한 고민과 농업용수 활용 관련 구체적인 대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21일 양 행정사에서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시에서는 오후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서귀포시에서는 오전 서귀포시 제1청사 문화강좌실에서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박원배 지하수연구센터장이 물관리 기본계획 반영 과제(안)에 대해 발표한 이후 패널 토

론, 도민과 전문가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연구진은 도내 물 관리 관련 현안으로 상수도의 경우 낮은 우수율, 농업용수의 경우 공급 체계 문제와 함께 가뭄 시 비상용수 확보 방안을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할 컨트롤 타워 및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제안됐다.

특히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내 지하수 함양량과 지속이용가능량을 재산정했다. 함양량은 강수량 중 증발되거나 지표로 유출되는 양을 제외한 실제 지하로 함양돼 저장된 지하수의 총량을 뜻한다.

연구진은 지난 2003년부터 함양량 산정 시 활용했던 '물수지분석법'이 아닌 'SWAT-K' 방법을 활

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정 결과 지하수 함양량은 18억 4700만t으로, 제주 전역 함양률은 45.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조사 당시보다 약 2억4300만t 늘어난 수치다. 그 결과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가능량 역시 기존 2018년 대비 1억3700만t가량 늘어난 7억8900만t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2018년 산정한 함양량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의 증가에도 유출량과 증발된 빗물의 양이 과다 추정되면서 함양량이 과소 산정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통합형 물관리 체계 구축'으로 설정됐다. 또 5대 핵심전략과 22개 추진과제가 수립됐다.

이중 상수도·농업용수의 우수율 개선과 대체수자원 활용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상수도와 농업용수의 '용도별 연계 공급체계 구축', 즉 일원화 계획이 세부 과제로 제시됐다. 또 친환경 대체수자

원 활용 비율을 현재 3.5%에서 20%까지 늘린다는 과제도 제안됐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이동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실질적인 물을 사용하는 농민을 포함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실현, 매년 되풀이 되는 가뭄 대응에 대한 예산 확보에 따른 보완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남칠 연세대학교 교수는 "연구 영역에서 수질오염된 부분도 모두 통합해 양면 체크하고 있는데 제주도 가뭄 활용에 있어 90%가량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수질' 문제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상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상수도 우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 반면 농업용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며 "통합 물관리라는 큰 틀에서 보면 농업용수 분야 우수율 제고에도 적절한 예산 배정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금탁·강다혜기자

“도 추정안, 아니다 싶으면 과감한 수술”

김경학 의장, 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개회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추경 예산안이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뛰어넘어 미래 재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따져보며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한 수술도 필요하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김 의장은 21일 개최한 제408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힘들고 지친 도민들을 치유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예산의 효과가 애초 계획했던 대로 힘든 도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9일 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도의회에 기정예산 6조 3922억원보다 13.3%(8510억원) 증가한 총 7조243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특히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최근 도의회의와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격 합의한 대로 ‘힘내!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700억 원을 편성했다.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교육청 역시 당초 예산보다 2873억 원이 늘어난 1조652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예산은 잘 책정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1일 제408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되어 있는지, 더 투자해야 할 곳은 없는지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세원”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세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데다 지출 구조 조정 방침도 있어 국비 절충이 정말 중요하다.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분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민선8기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회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사업들을 담아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 코로나19 신규 994
잠정집계 21일 <17시 기준> 누적 25만4360

Welcome to Jeju

2022 제주일보배 전국탁구대회

'2022 제주일보배 전국 탁구대회'가 국내외 탁구인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열립니다.
제주탁구의 발전과 저변 확대, 국민건강 증진 기여, 전국 탁구인의 화합과 친선 등을 도모하는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간 ▶ 2022. 7. 23(토) ~ 24(일)
장소 ▶ 제주북합체육관

- 개회식, 2022. 07. 23(토), 15시 (*경품 추첨 : 탁구용품 및 기타 등)
- 일반부 D, E그룹 개인, 단체전 : 7/23(토)
- 일반부 A, B, C그룹 개인, 단체전 : 7/24(일)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TEL.064)725-8989]
※ 경기요강 및 자세한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홈페이지 www.jsitta.kr 또는 대한탁구협회 디비전리그 홈페이지 https://ttadivision.sports.or.kr 참조

경기종목

● 일반부(개인, 단체전)
① A그룹(남녀) : 선수부, 1~2부
② B그룹(남녀) : 3~4부
③ C그룹(남녀) : 5부
④ D그룹(남녀) : 6부
⑤ E그룹(남녀) : 7부, 8부, 9부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회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 참가자 전원 기념품(타그로 티셔츠) 증정

주최·주관: 제주일보,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개최지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KTTA 대한탁구협회
후원: TAGRO, JEJU, MAISON GLAD,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KREA 한국마사회, 롯데관광개발, 1950, LOTTE HOTELS, 제주농업농림진흥재단, NH농업 제주시지부, 제주관광농업진흥조합